

김형익 목사의 율법과 복음

4강 신자는 왜 죄를 짓는가 (롬 6:11~14)

1.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은 신자가 왜 죄를 짓는가?

A.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12) vs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14)
이 두 구절의 차이가 무엇인가?

차이를 분별하는 첫 번째 열쇠는 '죽을 몸'과 '너희'를 구별하는 것이다. 14절에 '너희'는 신자의 본질적인 인격과 존재 즉 신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12절에 '너희 죽을 몸'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차이를 분별하는 두 번째 열쇠는 12절은 명령법이고 14절은 직설법이라는 차이이다. 신자 자신('너희')은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자의 몸('죽을 몸')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한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신자 자신이 아니라 신자의 죽을 몸이다.

B. '죄의 몸'(6), '죽을 몸'(12)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죄의 몸 = 죽을 몸 =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 또는 죄에 의해 제한되고 통제받는 우리의 몸(존 스토틀), 현재 몸을 입고 사는 상태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이드 존스)

죄의 몸은 옛 사람(6절)과는 다르다.

C. '옛 사람'(6)은 누구인가?

옛 사람은 죄성, 육체의 본성, (예수님을 믿기 전의) 옛 본성, 정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옛 사람 = 회심 이전에 아담과 연합한 사람, 율법 아래 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옛 본성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회심 이전에 우리의 상태, 즉 우리의 전부이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

옛 사람이 죽은 목적은 죄의 몸도 죽어서 더 이상 신자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신자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다(롬 8:23).

복음의 직설법과 율법의 명령법의 순서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복음의 사실(직설법)을 믿지 못하는 데서 수많은 신자들은 죄가 자신의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하게 된다.

2. 죄는 신자 안에 있지 않고 죄의 몸 안에 있다(6:12 '몸의 사육').

이전에 내가 옛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죄가 나에게 노예 주인과 같은 행세를 했었고 나는 죄의 노예처럼 살았으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죄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신자에게 죄는 주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귀찮게 하는 골치 아픈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신자는 날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의 행위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이다.

3. 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지식이다.

진짜 거룩의 의지와 능력, 죄와 싸워 이기려는 생각은 바로 이 진리를 믿고 깨달음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4. 교훈과 적용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행한 것이 없이 불경건한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면 결코 은혜를 더한다는 명목으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아직 여러분이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복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하는 믿음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구하라.

만일 여러분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면, 매일 매 순간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일지라도 기억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11).”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자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중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 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5~39).” 아멘.

